

도시빈민·농촌託兒所

"시설기준 완화를"

여성계등서 「託兒문제」 토론회

民自黨과 平民黨이 각각 탁아관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9월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여성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육아와 탁아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모임이 잇따라 열렸다.

여성학자·사회학자·행정학자·변호사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16명이 결성한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은 지난 22일 延世大 장기원기념관에서 「육아현실과 탁아제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육아와 탁아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張必和(梨大·여성학)趙玉羅(西江大·사회학)趙馨(梨大·사회학)梁玉承(德成女大·유학교육학)교수등 11명이 발표하고 朴英淑의원, 金京泰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시빈민지역과 농촌지역의 육아에 대해 발표한 趙玉羅교수는『도시빈민이나 농촌지역에서 탁아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전제하고『이런 지역에서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두기 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일부 개량해 사용하거나 근처의 공지, 농촌마을의 놀이터등을 이용해 한시바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이 주최한 탁아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延世大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리는등 토론모임이 잇따랐다.

父母가 幼兒위한 프로그램 적극 개발해야

이를 다각도로 토론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도 24일 오후 2시 대학문화원강당에서 「탁아관계법에 관한 쟁점과 대책」이란 주제로 제 4차 학부모논단을 개최했다. 「걱정하는 모임」이 개최한 탁아입법대토론회에서는 「육아의 원리와 이념」 「탁아정책의 대안모색」 「미래의 탁아환경」등에 대해

배 많은 탁아소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梁玉承교수는 「탁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운영지침」에서 3세미만의 영아를 위해서는 유아1인당 3.75평방m(1.14평), 3세이상의 유아에게는 3.20평방m(0.97평)의 활동면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유아끼리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을 섞어 다른 연령의 유아들과 지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梁교수는 또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조직이 활성화해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탁아소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부모연대가 마

련한 간담회에서는 유아교육자·민간탁아관계자·여성계등이 탁아의 기능, 정부의 지원대상등에 대해 각기 조금씩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나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각 정당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된다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蘭>